

위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미리보는 위(Wee) 소식

목차

→ 전문가 칼럼

- ☑ **게임, 소통의 매개체**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임연구원 **채다희**

→ 현장의 소리

- ☑ **코로나 우울로부터 내 아이 지키기**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정효숙**
- ☑ **우리 함께 가요**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전상민**

→ 특별기획

- ☑ **코로나 상황에서 영국의 학교상담 정책**
University College London
박사과정 **강호원**

위(Wee), 알려드립니다

알림

→ 다음 호 소식

- ☑ **해외 학교상담 현황 - 미국**
- ☑ **위(Wee) 뉴스레터 원고 모집**
- 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에서는
위(Wee)프로젝트의 정책, 운영 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 안내 등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위(Wee)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격 위(Wee) 프로젝트 관련 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위(Wee) 프로젝트 참여 학생 및 학부모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jhk821@kedi.re.kr)로 제출

문의 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정혜금



전문가 칼럼

게임, 소통의 매개체

10년 만에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

지난 8월 25일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 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던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규제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완화와 수면시간 보장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런데 <2020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1차년도)>에 따르면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성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게임 이용자 모두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학습 시간을 줄이는 것이 수면시간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인으로 제기되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a).

즉, 게임 이용시간을 강제로 제한한다고 하여 수면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셧다운제는 애초에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안이었다. 게다가 게임 셧다운제는 PC 게임에 한해 적용된 제도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으로의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지도 못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게임으로의 적용 범위 확대를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지난 8월 ‘규제 챌린지’ 과제에 포함되어 폐지가 결정되었다.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통제하고, 여가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또한 게임 이용시간을 두고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규제에 기대게 함으로써 학교나 가정의 보호·교육의 역할을 축소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게임 시간 선택제로의 일원화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국가에 의한 통제 영역에서 다시 가정과 학교 교육의 영역으로 옮겨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게임, 청소년의 대표적인 여가문화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71.3%가 게임을 하고, 이 중 10대의 무려 93.7%가 게임을 이용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즉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게임은 문화 콘텐츠를 넘어 일상 그 자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게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이나 협동심을 배우기도 하고,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을 기르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은 청소년이 학업과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돕는 대표적인 여가문화의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은 TV시청(37.7%)이고, 게임은 5.2%로 5위에 해당하였다. 이때 조사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1순위로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비율이 높아지며, 15~19세 청소년은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1위가 게임(22.2%)이라고 응답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또한 해당 조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어떤 방식으로 여가를 향유하는가를 유추해볼 수 있다. 15~19세 청소년이 홀로 여가를 즐기는 비율은 74.0%로 전체 응답자 평균(60.0%)에 비해 비교적 높았고,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 평균(38.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53.3%). 반면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은 0.3%에 불과하였는데, 전체 응답자가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비율이 4.1%임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임연구원

채다희



통권 59호 2021년 가을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수치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즉,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혼자서 여가를 즐기는 것을 선호하며, 현재 게임은 청소년의 이와 같은 선호를 채워주는 여가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섯다운제 폐지로 인해 가정과 학교의 영역에서 기성세대와 청소년이 게임 이용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만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여가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섯다운제 폐지 이후의 청소년 게임 이용, 소통의 수단이자 기회로 삼아야

과거에 비해 요즘 교사나 학부모들은 IT 기기나 게임에 친숙한 세대가 많아졌다.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과 함께 게임을 매개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게다가 게임 이용에 대한 통제가 규제의 영역에서 학교와 가정의 영역으로 되돌아온 이상,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보다는 어떤 게임을,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을 하며 자라온 세대가 교사와 학부모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성세대는 자신이 게임을 하는 것과 무방하게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게임이나 SNS 등에 과몰입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도 커졌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프라인에서 서로 소통하기 어려워진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시간과 빈도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게임 섯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진 교사나 학부모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섯다운제 폐지는 부모나 교사가 청소년과 게임 이용에 대해 직접 논의하고 소통함으로써 청소년의 게임을 선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

게임을 건전하게 활용하고 일상생활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집단을 ‘게임 선용군’이라고 분류하는데, 특히 게임 선용군의 경우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한 부모의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게임 과몰입군 청소년은 보호자가 자녀(자신)의 게임 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73.0%로 나타났으나, 게임 선용군의 경우 86.0%가 보호자가 본인(자신)의 게임 이용에 대해 매우 잘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시간과 빈도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부모와 게임을 함께하면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게임 선용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소통이 기반이 된 게임 선용은 게임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게임을 통해 삶과 여가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도와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다.

〈20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평소 게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자체가 재미있어서(44.6%)’,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16.3%)’,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는 ‘재미가 없어서(36.6%)’, ‘게임 이외에 다른 활동이 더 재미있어서(20.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b).

즉,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재미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를 보내기 위해 게임을 하지만, 다른 활동에서 더 재미를 느낀다면 게임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은 많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은 더욱 줄어들었다. 여전히 청소년은 자신의 집단 안에서만 게임을 함께 향유하려고 하고, 가족과 함께 게임을 하는 문화가 아직은 어색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성세대는 청소년이 게임 안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따른 약속이 생겨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갑작스럽게 게임을 끄라고 하거나, 무조건 게임을 하지 못하게 교육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타인과의 신뢰를 깨버려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로 사전에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과 빈도를 정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게임 이용시간과 빈도를 통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소년은 어른과의 약속을 지키고 자기통제력을 갖추게 될 수 있고, 기성세대는 게임을 매개로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통이 기반이 된 게임 이용은 단순히 혼자서 즐기는 여가를 넘어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는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게임 과몰입(혹은 중독)을 걱정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게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게임을 문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산업적 측면에서만 게임의 가치를 매기기에는 게임이 지니는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는 너무도 분명하다. 특히 무엇보다 소통을 매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때에 오히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의 수단으로서 게임의 긍정적인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통권 59호 2021년 가을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1차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2020b). 20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2021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현장의 소리

코로나 우울로부터 내 아이 지키기

2021 중부 자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부모 유튜브 라이브 특강 운영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정효숙

1. 서울 중부 위.하.다. 프로젝트 소개

중부 위.하.다. 프로젝트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위 기학생(급)의 희망찬 **하** 루를 위해 온 마음을 **다** 하여
지원하는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위기학생(급)의 희망찬 하루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지원하는 「2021 중부 위.하.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인지, 심리·정서, 환경·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자살·자해 시도, 학업중단 위기, 학교폭력 가·피해 우려, 기타 심리·정서 위기 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이들이 속한 학급, 담임(당)교사 및 학부모를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관내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심리 상담을 위한 '마음톡톡 상담지원단', 위기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위기대응 코칭', 자살·자해 시도 사안 긴급 컨설팅, 위기학생 이해 및 지원을 위한 교사·학부모 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자녀 정신건강 증진 학부모 연수 배경

「2021 중부 위.하.다. 프로젝트」 중 위기학생 이해 및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연수는 학기별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자살, 자해 등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증진을 위한 학부모의 자녀 이해 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가정에 전달되는 시기인 6월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살피고 적절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코로나 우울로부터 내 아이 지키기」라는 주제로 학부모 연수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자녀 정신건강 증진 학부모 연수 진행

본 연수는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참여 신청 및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전 질문을 분석한 결과 자녀 우울증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이 매우 깊은 것으로 나타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고 아동·청소년 우울장애의 특징, 자녀의 자살(자해) 징후 발견 및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정신과 전문의가 답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 특강 유튜브 화면〉



〈학부모 특강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

4. 자녀 정신건강 증진 학부모 연수 결과

관내 학부모 200여 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6% 이상이 '강의가 자녀의 정신건강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강의 후, 학부모들의 소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5학년 사춘기인 아들과 가정에서 갈등이 많았는데,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좋았습니다.
- 자녀의 성장 발달과 우울증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청소년기의 특징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부모의 행동 지침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10대 자녀 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힘들었는데 저에게는 안성맞춤인 강의였습니다.
- 앞으로도 학부모 온라인 연수가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과 같은 '코로나 우울'에 대한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위기 학생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지속해서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소리

의성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가족체험 행사

‘우리(Wee) 함께 가(家)요♡’

가족의 대화·화합 그리고 추억 만들기

의성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매년 특색사업으로 가족 간의 대화와 화합, 그리고 추억 만들기를 위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교육청 내에 있는 체육관에서 ‘도자기 핸드페인팅-행복을 그리는 가족 도자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초벌 된 도자기 위에 물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한 후에 가마에 구워 각 학교에서 참가한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수반(水盤)을 활용한 가족 정원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성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소개

의성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마늘과 컬링으로 유명한 경북 의성에 위치하며, 2012년에 개소하여 총 7명의 상담인력들이 관내 초·중·고등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매운 마늘처럼, 군 지역이지만 상담에 대한 수요가 많아 저희 센터 인력들은 늘 분주합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특색사업은 ‘우리(Wee) 함께 가(家)요’-가족체험, ‘우리(Wee) 날자 꿈(Dream)향해’-사제동행, ‘우리(Wee) 같이 손잡고’-지역연계, ‘우리(Wee) 같이 힐링(Healing)’-교직원 힐링 연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는 참여 학생들의 가족이 함께 하는 ‘우리(Wee) 함께 가(家)요’라는 행사인데, 매년 많은 가족이 참여하고 만족도가 매우 높아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우리(Wee) 함께 가(家)요♡

프로그램 이름은 Wee프로젝트의 Wee와 한자 家를 활용하여 위(Wee) 센터와 가족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체험하러 가자고 조르는 모습도 상상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의성은 규모가 작은 지역이라서 문화적인 면에서 가족들이 즐기면서 긍정적인 정서 체험을 하는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하고 매년 다른 주제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모든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

이번 행사에는 28가족 77명이, 지난번에는 35가족 135명이 참여했습니다. 최소 2명부터 많게는 6명의 가족도 참여하는데, 엄마 품에 안긴 동생과 형이 같이,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참여하기도 하며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부모님 중 한 분이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 행사는 ‘건강한 가족 만들기’라는 행사의 목적에 맞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대상자라면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초창기에는 학교에 다니는 형이나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전상민



통권 59호 2021년 가을호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언니들이 어머니 아빠와 함께 참여하고 동생들만 집에 남아있게 되어 곤란한 일들이 생겼고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재와 같이 모든 가족이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해오면서 갓난아이 동생이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의도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지만,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현재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참가 가족 수에 비해 참여하는 총인원이 매우 많았고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2020 가을행사



2021 여름행사

준비하는 설레임과 의미 있는 시간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느끼는 설레임, 행사장에 오면서 나누는 기대 섞인 대화들, 행사에 참여하여 서로 도우며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행사가 끝난 후에 손에 쥐는 뿌듯한 결과물들, 그리고 나중에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게 되는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상상하며 위(Wee) 센터의 구성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님은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와 이야기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학생은 “아빠와 함께 그림을 그려서 너무 행복했어요. 완성된 그릇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담아 먹고 싶어요.”라는 듣기만 해도 절로 따뜻해지는 예쁜 말을 해주었습니다.

각각의 가족들은 접시와 파스타 그릇, 밥공기와 국그릇을 가족 수만큼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도자기 위에 예쁜 물감으로 가족만의 개성을 살려 함께 작품을 완성해 나간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아이들과 부모님의 기억 속에 간직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족



6명의 가족이 참여하여 만든 파스타 접시 사진



특별기획

코로나 상황에서 영국의 학교상담 정책



University College London
박사과정
강호원

영국(UK)에서 학교기반 상담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가장 흔한 유형에 속한다(University of Roehampton, 13, August 2020). 잉글랜드(England)의 경우에는 초중등 학생 아홉 명 중 한 명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십대에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은 경우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두 배 이상이 된다는 결과가 2017년에 발표된 바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와 Department for Education, 20, December 2018). 이에 잉글랜드 정부는 학생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기간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기반 상담서비스 등 학교에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코로나19 확산 및 이로 인한 봉쇄령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으며, 코로나 기간 중 원격상담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기획기사에서는 영국 중에서도 잉글랜드의 학교상담에 대한 정책과 현황을 중심으로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상담자의 역할과 코로나로 인한 업무변화

① 학교기반상담 제공

2017년을 기준으로 영국 전역에서 중등학교의 약 84% 그리고 초등학교의 약 56%가 교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Department for Education, 3, August 2017, p. 29), 이는 통상적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에서 상담사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University of Roehampton, 13, August 2020). 사실 영국(United Kingdom)의 학교기반상담은 네 자치정부별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각 지역의 학교상담과 관련된 정책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영국의 지역별 학교기반상담 정책

자치정부	관련 정책
잉글랜드 (England)	초중등학교의 학교기반상담 서비스를 장려하고는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Department for Education, February 2016, p. 4).
웨일스 (Wales)	초등학교 6학년과 만 11~18세를 대상으로 학교기반상담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다(Llywodraeth Cymru Welsh Government, June 2013, p. 8).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초등단계 이후의 모든 학생(특수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적용)이 학교기반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용도지정기금을 제공하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September 2020, p. 1).
스코틀랜드 (Scotland)	중등학생 및 만 10세 이상의 특수아동에게 학교기반상담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다(Scottish Government, March 2020, p. 2).

다른 세 지역과는 달리 잉글랜드에서는 학교기반상담 서비스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유형과 소재지에 따라 학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협회(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IPPR)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사립학교의 75%가 학교상담을 제공하는 데 반해 공립학교는 48%만이 학교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극빈 지역의 학교가 가장 부유한 지역의 학교에 비해 학교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October 2020, p. 28).

통상적으로 잉글랜드의 학교기반상담(school based counselling) 서비스는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교내에서 학생과 일대일로 면담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여, 때로는 특정 학생집단과 소집단 과제를 진행하기도 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February 2016, p. 8). 학교상담은 환영받고 지지받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이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놀이나 예술 기반의 방법(art based methods)과 통합된 일대일 상담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중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단기간에 완화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February 2016, p. 9).

② 지역별 정신건강지원팀 발족

잉글랜드는 국민의료보험(NHS)의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보건 분야와 교육 분야를 보다 긴밀히 연결함으로써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정신건강지원팀(Mental Health Support Teams, MHSTs)을 신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각 지역에 신설된 팀은 해당 지역에서 약 20개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학교의 (경증~중증의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이미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학교상담사, 양호교사, 교육심리사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HSTs는 학생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의한 내용에 대해 수업일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응답하거나 가족이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5, March 202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 기간에도 MHST는 원격서비스를 통해 학생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일례로 켄트(Kent) 지역의 MHSTs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방법 상담을 위한 가상 방문 세션(virtual drop-in session)과 고민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20분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5, March 2021).

2. 코로나 상황에서 영국 학교상담의 현황(실태)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운동을 전개하는 자선단체인 영마인즈(YoungMinds)가 2020년 9월(전면등교 재개 시점)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이용 가능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유형 중 학교상담사를 통한 지원이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YoungMinds, Autumn 2020, p. 7). 또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영국의 만 10~18세 아동 및 청소년 응답자 중 코로나 사태 전후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학교의 정신건강 지원이 줄었다고 답한 경우는 23%였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58%였고, 코로나 이후에 지원 수준이 늘었다고 답한 경우는 9%에 그쳤다(p. 7).

또한 로햄튼대학교(University of Roehampton)와 영국상담·심리치료협회(British

Association for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BACP)의 공동연구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실시된 이후 휴교나 상담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영국 전역에서 학교상담을 받는 학생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담사 한 명 당 대면치료 시간도 주당 15시간에서 3시간으로 급감한 상황을 보여준다(University of Roehampton, 13, August 2020).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대면 서비스는 감소한 반면에 화상, 전화, 문자를 이용한 상담은 크게 늘었는데, 상담사 한 명 당 화상상담에 쓴 시간은 주당 18분에서 2시간 58분으로, 전화상담은 13분에서 3시간 19분으로, 그리고 이메일상담은 7분에서 46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과의 상담서비스의 약 절반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해당 연구에 참여한 학교상담사들은 다음 학기 학교상담의 최우선 과제는 정신건강을 핵심 서비스 중 하나로 인식하는 의식 고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BACP는 전면등교 재개가 시작되면 학교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BACP, 14, August 2020).

3. 정부의 대처방안

① 정신건강지원팀 확대

잉글랜드의 경우 2021년 3월 전면등교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된 학생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내 MHSTs를 2023년까지 400개로 확대(잉글랜드의 1/5~1/4을 커버)함으로써 약 300만 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데 7,900만 파운드(한화 약 1,273억 455만 원)의 추가 재정을 할당하였다(Department for Education, 5, March 2021). 여기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응급전화 서비스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BACP와 같이 잉글랜드의 모든 중등·후기중등학교에 학교상담사를 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측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MHSTs 재정은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투자가 아닐뿐더러 혜택의 범위도 잉글랜드의 학생 중 1/3에 그친다고 비판하고 있다(BACP, 3, June 2021).

② 런던의 MHSTs 프로그램과 코로나 대처 사례

2017년부터 시작된 수도 런던(London)의 MHSTs 프로그램은 보건과 교육 분야의 협력을 전제로 고등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같은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Healthy London Partnership, March 2021, p. 3). 코로나19로 인한 휴교와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 특히 원격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런던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MHSTs 접근법을 모색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각 학교가 선호하는 방법 및 전면등교 시기에 맞춰 대면 서비스와 원격 서비스를 병행하는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격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화 또는 줌(Zoom) 등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Healthy London Partnership, March 2021, p. 8). MHSTs의 지원 대상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각 대상에 적합한 지원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면등교가 실시된 상황에서도 집단 세션 등은 원격 서비스로만 진행하는 등 원격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참고자료

- BACP(14, August 2020). Anticipating a rise in demand for school counselling after Covid-19 closures. <https://www.bacp.co.uk/news/news-from-bacp/2020/14-august-anticipating-a-rise-in-demand-for-school-counselling-after-covid-19-closures/> (2021. 8. 11. 인출)
- BACP(3, June 2021). School counselling in England campaign. <https://www.bacp.co.uk/news/campaigns/school-counselling/> (2021. 8. 11.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February 2016). Counselling in schools: a blueprint for the futur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7825/Counselling_in_schools.pdf (2021. 8. 11. 인출)
- Department of Education(September 2020). Independent Counselling Service for Schools (ICSS) Handbook. <https://www.education-ni.gov.uk/sites/default/files/publications/education/ICSS%20Handbook%20September%202020.PDF> (2021. 8. 11. 인출)
-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5, March 2021). £79 million to boost mental health support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https://www.gov.uk/government/news/79-million-to-boost-mental-health-support-for-children-and-young-people> (2021. 8. 11. 인출)
- Healthy London Partnership(March 2021). Mental health in schools: positive practice report. <https://www.healthylondon.org/wp-content/uploads/2021/04/Mental-health-in-schools-positive-practice-report-002.pdf> (2021. 8. 11. 인출)
-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October 2020). The 'new normal': The future of education after Covid-19. <https://www.ippr.org/files/2020-10/the-new-normal-oct20.pdf> (2021. 8. 11. 인출)
- Islington Schools Wellbeing Service(24. February 2021). Supporting pupils' worries about returning to school.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Rjtv58hyx8>
- Islington Schools Wellbeing Service(n.d.). Yo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WrYEXUT4hZFQhzLeSO4ZLA/videos> (2021. 8. 11. 인출)
- IslingtonCS(2021). Islington School Wellbeing Service(SWS) school offer. <https://www.islingtoncs.org/system/files/SWS%20Current%20Offer%20-%20Primary%20and%20Secondary%20-%20For%20website%20-%20May%202021.pdf> (2021. 8. 11. 인출)
- IslingtonCS(n.d.). Home > School Wellbeing Service. <https://www.islingtoncs.org/SWS> (2021. 8. 11. 인출)
- Llywodraeth Cymru Welsh Government(June 2013). Statutory guidance to Welsh local authorities on the provision of independent counselling services. <https://gov.wales/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18-03/statutory-guidance-to-welsh-local-authorities-on-the-provision-of-independent-counselling-services.pdf> (2021. 8. 11. 인출)
- Scottish Government(March 2020). Guidance for education authorities establishing access to counselling in secondary schools. <https://www.gov.scot/binaries/content/documents/govscot/publications/advice-and-guidance/2020/03/guidance-education-authorities-establishing-access-counselling-secondary-schools/documents/guidance-education-authorities-establishing-access-counselling-secondary-schools/govscot%3Adocument/guidance-education-authorities-establishing-access-counselling-secondary-schools.pdf> (2021. 8. 11. 인출)
- University of Roehampton(13, August 2020). School counselling in the UK halved by Covid-19 restrictions. <https://www.roehampton.ac.uk/psychology/news/school-counselling-in-the-uk-halved-by-covid-19-restrictions/> (2021. 8. 11. 인출)
- YoungMinds(Autumn 2020). Coronavirus: Impact on young people with mental health needs. <https://www.youngminds.org.uk/media/0h1pizqs/youngminds-coronavirus-report-autumn-2020.pdf> (2021. 8. 11. 인출)